

지금 맥의 건축은 어떠십니까?

What can an architect contribute to society?

조인숙 | 건축사사무소 다리건축

반세기 전에는 성장을 목표로 기술에의 도전이나 발전에의 기여가 이슈였다. 요즘은 시사성이 높은 내용들이란 녹색성장·친환경·전통 보존 및 문화유산 활용에 대한 논의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적으로 알려진 건물의 비교 중 아주 중요한 사항을 한 번 되새겨 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이런 견해가 공사 마무리를 했거나, 하고 있는 서울의 동대문 역사공원이나 서울시청사 프로젝트에 참고가 되었으면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역사도시 서울 사대문 안의 두 프로젝트 모두가 구현하는데 너무 어려운 그림만을 가지고, 작품이라고 어렵게 지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문화예술에 너무 치우쳐 과학기술이나 환경에 대한 배려가 적다는 뜻이지 설계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다.

1972년 독일 뮌헨 올림픽 주경기장과 2008년 중국 베이징 올림픽 주경기장에 대한 비교다. 40년 전 뮌헨 올림픽 공원의 설계는 당시 혁신적인 아이디어였다. 조형적으로는 알프스산을 모방하고, 형식은 경직되었던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 대응하여 새롭고 민주적이며 낙관적인 디자인으로 건축 및 구조와 재료가 어우러진 당시 아주 참신한 작품이었다. 막상 시공비가 예산의 몇 배가 들어가게 되자 한편으로는 국민의 세금을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비난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독일 건축계는 경기장을 덮었던 아크릴 유리(acrylic glass)와 강선(鋼線, steel cable)이 대형공간에 사용된 최초의 예로 건축기술 발전에 쾌거를 이뤘다는 사실에 모두 동의한다. 그 작품을 통해 건축설계뿐 아니라 재료와 기법 및 협력해야만 하는 기술 분야까지 한 단계 올라가는 전환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독일 내부에서만이 아니라 세계건축계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 예산보다 늘어난 시공비가 궁극적으로는 연구개발비라고 이해되었고, 공사비 논의는 종식되었다.

그로부터 30년 후 뮌헨 올림픽 주경기장을 허물고 그 자리에 2002년 월드컵축구경기장을 짓자고 할 때 뮌헨공대(TUM) 및 뮌헨대(LMU)를 중심으로 건축역사학자들이 주도하고 시민이 들고 일어나 연판장을 돌려서 30년밖에 안된 올림픽 경기장이 현대건축으로써 독일의 문화재가 된 것은 초유의 일이었다.

반면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의 주경기장이었던 중국 국가체육장 새둥지(鸟巢, 냐오차오 Bird's Nest)는 아직은 단순히 건축사의 의지를 구현한 작품으로 밖에는 평가 받지 못하고 있다. 중국 도자기를 연구하여 디자인에 적용한 예라고 하는데, 한편 중국에서 '새둥지'란 비싼 요리의 이름이기도 하다. 중국에서 생산된 11만 톤이나 되는 강철이 소요된 큰 규모의 건축물은 유사한 규모의 아주 잘된 건물에 비해서 재료비 및 공사비가 8배 이상 들었다고 한다. 이 '비싼 요리'에 대해 중국정부는 대국답게 세계에 알리는 단 한 번의 기회에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전문가적 견해로 중국 사례는 뮌헨 사례와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도 건축에 새로이 기여한 바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그 새둥지가 뭇가를 보여준 외에 세계 건축계에 기술이나 설계발전엔 끼친 새로운 과장이 있는지는 좀 더 두고 보아야 할 일이지만 조명과 함께 일시적으로 눈을 즐겁게 했던 것은 틀림없다.

녹색성장·친환경·전통 보존 및 문화유산 활용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 동대문 역사공원 및 디자인 플라자나 “현대판 쓰나미”라는 별칭을 얻은 신 서울시청사는 오픈을 앞두고 세계건축계에 어떤 기여를 하나 돌아볼 만하지 않을까? 📌

조인숙 건축사는 대한건축사협회 국제위원장(2012), ICOMOS한국위원회 위원 및 경기도 문화재 위원(기념물분과)이며, 대한건축사협회 2012년 한옥설계 전문인력양성에 열의를 다하고 있다.